

발행주최	인간간장	신조	국립	주최
편집	김국	박	영	김
집필	김	영	김	영
인쇄	김	영	김	영

싸움에 이기면 원한이 있고 지는 사람 마음이 괴로운 것 이기고 지는 생각 모두 버리면 다툼이 없어서 스스로 편하리.
(法句經·안솔품 227절)

제 1043호 (주간)

1964.1.11 창간호부터 1995.10.13 제 9호 창간호(73)까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3월28일 (수요일) [1]

민주 총학 건설 주체는 '우리모두'

22대 총학선거 28·29 양일간 투표 실시 팽팽한 대결속 막바지 득표작전 치열 할듯

제22대 총학 정·부학생회장 및 여총선거가 오늘(28일)과 내일(29일) 양일간 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이면 당락이 판가름 난다.

3차유세: 지난 27일 오후 1시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기호2번 권오철(화학4)·이진현(경영4)·조는 자동차를 동원해 연단을 설치하고 문선대와 함께 입장해 민중대연합선, 학생회강화, 민주집중제원칙 등을 주장했다. 또 기호2번조는 '민주총학발전계획안'으로 자주화·민주화인 학자부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친미파소아합본체와 자주통일'을 외치며 등단한 기호1번 이규민(국문4)·이진선(이산부영4)·조는 해결산의 6개항 쟁취, 감사위원구성, 학대표위장정립을 정책으로 제시하며 재단혁신과 민중 복지동국건설을 학자부의 개혁으로 강조하

며 과학성회의 등록금 납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여중 단독후보 김윤향(선학4)·권미경(국문윤리4)·조는 전일여중을 비판하며 소모임 활성화, 위업대책의 구성, 여성학교 개설을 제시했다.

공개토론회: 지난 23일 오후 1시 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중선외에 접수된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공동선문인 '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자부의 전망'에 대해 양후보는 '범민주연합'과 '민중대연합'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학자부에 대한선 기호2번조는 '전망과 계획의 결여', '지도부의 독단성'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강화, 민중추대위 구성등을 밝혔다. 이어 기호1번조는 '90년 학자부는 정치·변혁지향적 투쟁이 되어야 하며 재단혁신과 복지문

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중선외에 접수된 내용 중 동연회장 김태진(국문4)·군의 '동아리진영'에 대해 기호1번조는 '동아리 해소론 반대'를 주장하고 '5월총회사수'를 제안했으며 기호2번조는 '동아리 발전적 해소론'을 주장했다.

2차유세: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 학생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에서 기호1번조는 '의리와信義가 바탕이 되는 힘있는 학생회 건설', '전국 1천개학과 동시 방북신청', '과별교류추진위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조는 민중대연합과 민중정당건설을 주장하고 '5월광주총회사수' 입장에 '서울역에서의 가두시위'를 제안했다.

한편 총학생회 단독입후보한 김윤향씨는 '청년학생의 대중화된 학생회', '조직화된 투

쟁체계구축'을 외쳤다. 이어 학생 1백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야간강좌 유세가 이날 오후 7시 동국관(LA01)에서 열렸다.



◇제22대 총학 정·부학생회장 선거 3차 유세가 지난 27일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경주 강의실 부족 '심각'

교수 충원-복지시설 확충등도 시급

경주캠퍼스는 학교당국의 근시안적 행정과 예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강의실부족, 복지시설 미비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학구성의 기본이랄수있는 강의실의 경우 현재 6개단대, 33개학과에 재학생수가 6천5백여명에 이르는 원효관32개실, 진흥관23개실, 도서관8개실, 한의관4개실, 의학관4개실등 총70개실만을 갖추고 있다. 다시말해 정상적인 강의가 이뤄

질수있는 강의실활용률 50~60%를 훨씬 초과한 70%이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효관에서 인문과학대 자연과학대에 한의학과를 총4개단과대학생들의 강의실 신입생들의 교양과목 강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과학실험실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수업시간에는 물론 교수연구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자연과학대 학생들은 원효관, 진흥관, 도서관등에서 등산강의가 실시되어 집없는 신세이며 자연과학대열학과와 의예과 학생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초물리학과 생물학 실험실의 부족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2백여명 이상 수용규모의 강의는 A·B반으로 나뉘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초과학관의 건립과 1개학년전체를 수용할수 있는 1천5백명 수용규모의 중앙강당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해 10월 28일 학생총회 실험실습실 1천

포항병원 재의 합의

정률 9% 인상... 시설확충 등 시급

본교 부속 포항병원(원장=金鍾高·의학)제6차 노조회의에서 지난 22일 208호 회의실에서 열려 올해 임금증가분급을 정률제 9%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때 따라 노조(위원장=김창식)는 이날 예정이던 노동쟁의 신고 계획을 철회했으나 "포항지역 여타 병원 수급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대학 병원의 차이는 여전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내용에는 기본급 9% 인상 이외에 상여금 1백% 인상, 건강 수당의 기존 10만 원 미준 8만 원 지급, 가족 수당 일괄 3만 원 지급등이다.

이런 임금 교섭결과 비교할 때 상여금은 5백%가 지급되는 것을 비롯 건강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톱근 버스 운행, 기숙사 시설등의 복지시설 확충을 노조에서 건의했는데 현재 포항병원의 전 반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합의내용에는 기본급 9% 인상 이외에 상여금 1백% 인상, 건강 수당의 기존 10만 원 미준 8만 원 지급, 가족 수당 일괄 3만 원 지급등이다.

이런 임금 교섭결과 비교할 때 상여금은 5백%가 지급되는 것을 비롯 건강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톱근 버스 운행, 기숙사 시설등의 복지시설 확충을 노조에서 건의했는데 현재 포항병원의 전 반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 행정 마비 상태

등록금 협상 결렬... 예산편성-학사일정 차질

학교당국은 등록금협상이 끝내 타결을 보지 못하자 지난 22일 9.8%인상률을 적용한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했다.

이번 등록금협상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1일 최종협상까지 13차례 걸쳐 있었으나 학생측 7%와 학교측 9.8%인상안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학교당국은 오는 4월 10일까지 문교부에 제출해야 할 재학생명단 작성등 학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사일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무처는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재학생 정명

검사 연기, 임명연기, 민방위 교육 면제, 교내의 장학혜택을 위한 제학 증명서 발급의 중단, 학생증 발급·불가능 등으로 학사일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특히 "오는 4월10일까지 문교부에 제출할 재학생명단 작성등 학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사일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무처는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재학생 정명

한편 본교 90학년도 예산편성이 등록금 문제와 적인노조 임금인상문제로 예년보다 1개월여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앞으로 인건비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장에 成 堉吉 교수
등록금 협상 원점 우려

한편 본교 90학년도 예산편성이 등록금 문제와 적인노조 임금인상문제로 예년보다 1개월여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앞으로 인건비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교 90학년도 예산편성이 등록금 문제와 적인노조 임금인상문제로 예년보다 1개월여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앞으로 인건비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교 90학년도 예산편성이 등록금 문제와 적인노조 임금인상문제로 예년보다 1개월여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앞으로 인건비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인간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험난한 삶의路程(노정)을 개척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올바른 노력(正命)·순수한 노력을 하느냐이다.

올바른 쪽으로 방향지워진 바른 노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노력(삶의 행위)이 그곳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특히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때 이는 미혹(迷惑)된 삶이라 불리운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나치게 열정을 갖고 성취하기만을 바라면서 어떤 결과만 집착하게 된다. 이것이 과욕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행위로하여 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만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는

대학의 아카데미 안에서 치러지는 어떤 일든지 바른 노력과 정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바른 노력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대학 가서 비싼 돈 지불하고 어떻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증생을 교화하는데 팔정도(八正道)를 두고 있다. 이 팔정도의 가장 중심에 바른 노력(正命)을 설명(說法)하신것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수 있다.

특히 많은 대중을위해 일하고서 선거에 나선 지도자 일수록 과정속에서 正命하는 데 힘쓰고 건강한 성취를 위해 순수한 열정을 바쳐야겠다. 그 속에서 공동의 화합과 사랑이 열리는 세계가 될 것이다.

如 然

바른 노력속의 성취

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학문을 연마하는데 열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대학자치활동인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학생회장 선거가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기생인의 정치 선거처럼 결과만의 성취우주로 인해 타락하고 부정한 편이 벌어지는 예가 가끔씩 있다.

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학문을 연마하는데 열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대학자치활동인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학생회장 선거가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기생인의 정치 선거처럼 결과만의 성취우주로 인해 타락하고 부정한 편이 벌어지는 예가 가끔씩 있다.

동대신문 40주년 기념/동국정신선양 기획광고 3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항가나는 빛
맑디 맑은 슬기
자애로운 힘

俗塵을 태우고
迷惑을 쫓아내는
仁者들의 아침
큰 힘이 퍼진다
햇살처럼 안개처럼 비처럼
천둥되어 바람되어 눈되어
큰 힘이 퍼진다

간담 뽕은 더 험해지고 좁아졌구나.
팔 걷어붙이고 머리끈 동여매고
나보다는 남을, 나라를, 인류를,
우주를 생각하는 젊음들이 이마를 맞대고
넉넉한 가슴을 열고 꿈을 쉼어 큰 뜻을 세운다.

큰 사랑, 큰 용기, 큰 결단, 큰 희생이 준비되고
최후를 책임지는 양심과 역사를 지키는 순결한 정열이 생성된다.
인류를 지킬 큰 힘이.

社說

등록금투쟁 '엎질러진 물' 아니다

작년부터 철회의 늪으로 빠져 들기 시작한 본교는 3월이 마감되는 지금에 등록금 협상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봉착했다. 단편을 본다면 고지밭에서 모은 것이 해결된 하지만 삼척등자도 알다시피 학교측과 학생들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졸업식 이후 '민중선거'에서 '등록금협상'으로 관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학교측의 13.96%인상률은 조급치의 경외도 설명되고 있던 것, 과학적인 검증의 미비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이미 불신을 안고 있었다. 더구나 매년 제기되는 등록금문제를 방학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학사일정의 마비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협상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매우 긍정적인 국면을 보여 주었다. 매년 예산편성시점시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예산안을 공개하며, 국고보조금확대 및 제단전입금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서 게재, 88년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교과위정성화를 위한 교수대신출과 학술진흥연구비확정,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6개항의 획기적인 성과에 잠정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9.8%와 7%의 차이는 끝내 극복되지 못하고 합의사항마저 파기되었다.

대중의 손으로 힘있는 학생회를

오늘(28)·내일(29)일일은 학우대중의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되는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동약은 학생회를 비롯한 교수회, 직원노동, 제단 등 각 주체가 한데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현대 동약의 현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주인이 없다고 한다. 각주체마다 명실공히 주체로서 혹은 주체의 전인으로서 인정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제단은 부정입학사건이유에도 전입금등 학교발전을 위한 학자투의 완수정지사업의 수행을 위해선 대중을 단순한 하부구조로 보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의사주체로 대우해야 하는 후보진영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중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응징하는 일이라야말로 어느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사업과정에서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학우대중에서 드러난 학교측의 가장 큰 실수는 등록고지서의 일방적 발표이다. 이는 문교부등록시한 보충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학교 스스로가 대화의 창구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학생회비·교과대당이 분리된 고지서는 학생들을 당혹케 했다. 문교부에서 계획된 학원연합 슬레이크 동안에서도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학생대표들도 합리적인 테두리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첫째는 시기상으로 등록금협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가계산을 작성해 놓고도 학교측에 끌려 3%에서 5%, 7%로 인상률을 자꾸 올린 점이다. 초기부터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로는 다음달 10일이 '문교부보고'일임에도 8일까지 등록금납부를 단과별로 실시기로 한 점이다. 이미 복학생·휴학생 및 장학금수혜자 등의 상당부분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인데다가 겨우 2~3일의 짧은 시일간의 파도론으로는 올바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이번의 등록고지서 또는 단과대납부투쟁은 88년에 보였던 최후의 무기로서 수업 거부·등록 거부와는 분명히 다르다. 결코 '엎질러진 물'이라는 규정하여 학교측과 학생측의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탈피해 현재 가장 취약한 제단전입금확보와 국고보조금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투쟁으로 돌아서야 한다.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사항과 정견 발표는 이전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후보진영으로부터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입각한 총학생회 건설'이라는 목소리인 것이다. 혁신하는 학생회, 올바른 학생회의 건설은 결국 학우대중으로부터의 검증과 통일단결의 굳건한 대오에서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동약의 당면과제인 민주중심성과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학자투의 완수정지사업의 수행을 위해선 대중을 단순한 하부구조로 보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의사주체로 대우해야 하는 후보진영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중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응징하는 일이라야말로 어느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사업과정에서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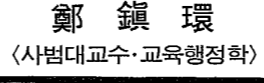
東國漫評

임치성

교육실습제 무엇이 문제인가

'닭 쫓던 개' 된 문교행정

최근 사범대학 및 교생에 나갈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앞두고 교육실습을 나갈 협력학교의 선정 그리고 실습동의서를 받으려고 동봉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4학년 학생이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4학년 학생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鄭 鎮 環 (사범대교수·교육행정학)



교수라면 적어도 한만큼은 겪어본 것 같다. 교육실습이 금년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나

이기에 선뜻 응해주고 난 후 나는 오늘날의 문교행정,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대학당국의 교원양성행정에 대해 매우 아쉬운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실습은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목의 영역중 교육이론영역 및 교과과정영역과 더불어 3대영역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실습은 교생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폭넓은

학 것임은 제본의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교부는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등의 법과 규정자체만을 관리해왔다는 나머지 필요적절한 조치와 지원 그리고 협조는 대학당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이른바 권력은 행사 하되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의무회피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겠다. 법규편리주의 행정이 필요적절한 조치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기본적으로 하는 당연한 사실적 본질에 비추어 볼때, 오늘날의 문교행정은 명백하게도 잘못된 법규판

정인 즉, 불법적인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활동의 확산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과 의식화된 교생으로 인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목 때문인 것 같다. 이유가 그렇다든 차더라도 국가가 양성하는 교원양성을 위해 문교부의 하위체제로서 당연히 필요적절한 협조를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반국가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이는 지나친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방식도 국가적임을 방패로 삼고 위태로움 할 수 있다. 행정이란 봉사정신 및 봉사행위를 전제로 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

동약 기사석

야총선거의 오류 답습말자

'유인물과 정책자료집 힘보'극복이 과제

민주적 총학생회 건설의 슬로건 아래 기존 학생회의 상층위주적 비대중적 사업 작풍에 대한 평가를 각인하고 관료적 건부의 품성과 추수주의적인 대중관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 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조직체제를 지향하는 이번 90년도 본교 총학생회 선거를 바라보고 함께 선거투쟁을 진행해 나가는 한 주체로서 나는 많은 면에서 대중운동가 스스로가 투쟁의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할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학생회를 철저히 다시한번 대상화하고 편성화된 선거운동 속에서 대중들을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와 염려로 뼈저리게 하였다. 나는 동약의 11개 단과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야간강과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치러진 만큼 이후에 학생회에 대한 발전적 전망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들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양 후보자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 보름 정도되는 짧은

운동성향 대자보 하루도 못넘겨

'여론의 장' 파괴행위 방지해서야

'대자보(大學報)'는 중공에서 문화대혁명에 한창 나붙었던 노동자·농민·홍위병·병사들의 개인 또는 집단의 의견을 발표한 핵심문서로 유래했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행처럼 퍼져 지금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일상생활속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동이리 세 가족 모임, 동문회, 과 학생총회, 정치활동등의 알맹이에서

교육실습에 협력할 중고등학교의 조직적인 알선 및 선정과 교생의 배치는 어디까지나 대학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학생들이 허겁지겁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불안정하고 있는 모습을 뵈면 앞에서도 내 일이 아니냐고 나는 모르겠다. 양 지켜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와같은 금년의 교육실습을 위한 행정의 이모저모를 놓고 볼때, 우리사회의 전모를 보는 듯 하다. 특히 행정부제의 현실이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자치권을 갖아가는 사범대학교의 임무과정을 뒤 쫓던 개 지붕처럼 보는 식의 문교행정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다. 교육행정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엄연한 원칙을 상기해서라도 문교당국은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법규편리주의회피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

은 학우들은 그들에게 어떤 후보를 낙첨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기까지 하는 웃을 수 없는 상황도 전개되었다. 선거 후의 모습도 대중들이 바라는 바와는 너무도 이질화되어 있는 현 학생운동의 정국상을 보듯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처해야만 하는 모습에서 우리들의 사상적 대중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정 운동을 하고 있는 대중운동가라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강 회 (야간강과 회계학과) 운동성향 대자보 하루도 못넘겨 '여론의 장' 파괴행위 방지해서야

담 화 문

1학기 등록금의 책정과 그 등록기간의 설정에 즈음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설명하여 학생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총학생회와 등록금 책정을 위한 협의를 거듭해 왔다. 그 동안 학교당국은 13.96%의 인상안을 놓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협의의 2개월에 걸친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등록금 책정의 지연은 학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가로막아, 학생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제반 행정상의 절차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학과 더불어 발생하는 많은 업무중에서 나의 직무권한에 속해 있는 수업의 진행, 신규교원의 충원을 비롯한 교육운영에 직결되는 학사업무는 최대한으로 그 기능을 살려나감으로써 학생여러분의 학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우당국 등 학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입영연기절차와 복학생의 예비군 편성 등 병사업무와 학외 운영단체에 대한 장학금의 신청에 필요한 제증명의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또 학적상 등록기간의 만료일인 3월 31일(학기초부터 1개월)을 불과 1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 재학생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여 학생여러분의 학적 확정절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학사행정의 1차적 절차인 등록업무가 그 法定時限을 넘기려 하는 막다른 시점에 이르러 나는 학생여러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갖추어 주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버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나는 지난 주말과 주중에 열린 教授會 代議員會와 서울과 경주의 양 캠퍼스 합동 敎務委員會로 부터 등록금 인상율의 조속한 결정과 수납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질없이 처리해 달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무릇 민주주의란 合理主義 原理에 바탕한 타협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共同善'을 창출하는 절차상의 제도임은 제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신봉하고 또 그 민주적 절차에 성실하게 따르면서 은인자중 총학생회와의 협의에 임해 왔던 것이다.

나는 총장 취임후 月余에 걸쳐 제단과 중단을 비롯하여 대학재정의 원활한 조성에 책임이 있는 사회 각계와 활발히 접촉하면서 근원적인 타계책을 모색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대학교육 40여년에 걸쳐 누적되어온 이 나라 대학재정의 문제점이 어느 특정대학, 또는 어느 한 총장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을 설립한 宗團과 財團이 지난해의

이러한 '기여금 입학사건'을 계기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의 전환기에 처하여 우리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데 모아, 대학재정의 개선을 위한 自力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나는 끝까지 총학생회와 긴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란 믿음을 스스로에게 거듭 거듭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부득이 나는 당초에 계획했던 13.96%보다 훨씬 하향조정된 9.8%를 인상 책정하였다. 이 한자던 인상율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10% 이상 인상한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나는 학생여러분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등록금 수입의 결손을 감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 결손분은 합리적이고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대학이 흡수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각오를 천명하면서 아울러 학생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고통의 분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나는 대학의 운영을 합리화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학생여러분의 학습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학생여러분은 이 '東國'의 모든 精神的 所産과 物的施設이 학생여러분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도 母校의 발전과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 결사한 개, 벽돌 한장이라도 아껴쓰고 또 물려주겠다는 애교심을 굳게 다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이 대학의 운영을 총체적이고 또 중국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이 이상 등록금의 책정을 미룰수 없다는 급박한 사정을 계삼 강조하면서, 총학생회와 무한정한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나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법정등록기한이 막두하여 추가등록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엔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본의아니게 學籍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1990년 3월 23일

등록금 투쟁 '엎질러진 물' 아니다

등록금 투쟁 '엎질러진 물' 아니다

등록금 투쟁 '엎질러진 물' 아니다

등록금 투쟁 '엎질러진 물' 아니다

'자주적 교류운동' 통해 반북의식 허물어

조국통일,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신데탕트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민족의 재통합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분단 후 남한 정부와 민족·민주운동진영내에서 제기되고 수행되었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 축인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편집자)



데탕트 무드를 이용해, 마이이 북한을 승인하고 중·소가 남한을 승인하는 교차승인과 유연단국가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움직임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과 자신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 '분단연구회'에 불과하다. 어떻게 '자주적 교류'를 외치는 정부가 의지에 의한 교차승인과 남한의 단독가입을 도모하는가?

이승만 집권기

이승만 집권기의 통일정책은 '북진 통일론'과 UN감시하의 자유선거 실시로 집약될 수 있다. 그것은 UN에 의지하려는 의제의존적 성격과, 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체제의 흡수를 전제로한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 통일방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허구적' 통일방안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두개의 한국조작책들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집권기

박정희 정부가 내 놓은 통일안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역시 '7.4남북 공동성명'이다.

70년대는 국제정세적으로 닉슨독트린과 이로인한 미-중간의 국교 정상화와 이에따른 긴장완화 동서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미국이 신데탕트를 주도하게 되는 배경은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생략) 7.4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편승, 미국의 두개의 한국 고립화정책과 남한 지배체제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남한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다.

5공의 통일안

5공화국 시절 정부의 대표적 통일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이라 할 수 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사상·이념·계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류·우편·체육 등에 관한 다각적 교류를 하는 데에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통일국가로 향하는 도정의 중간단계의 모호함 등으로 보았을 때 허구적 통일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후진체제의 유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쉽게 말해 통일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이다.

6공화국의 통일정책

6공화국 정부는 신데탕트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더욱 분단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신

◇글 신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데탕트 시대의 조국통일론

있었다.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국민대중에게 여론화되자, 현정부는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의 체결, 주변미군의 불필요성 등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구단일화'라는 논리로 일버무렸다.

둘째, 88년, 89년 조국통일운동은 반공, 반북 의식에 잠들어 있던 국민대중들을 깨웠다는 것이다.

44년간의 반복의 논쟁이 해어나 국민대중들의 북한을 바로 알라는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싹트고 있다.

셋째, 88년과 89년 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자주적·남북교류운동의 불꽃을 터, 통일운동을 국민대중과 함께 벌여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대에 들어와 진행된 통일운동을 통해 60년대 이후

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남한에서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긴장완화와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한에서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을 더이상 추구하지 말 것이며 한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이 과도적 고려연방제에서 완결된 통일국가의 형태인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두개의 한국조작책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신데탕트 조류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교차승인의 유연단국가임을, 교차승인의 유연단국가임을 기도하자, 예년 같은 뫼스프리트 훈현시 남·북대화가 북측의 거부로 단절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대화중단 6일만에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당대표들이 2차연석회의'에서 채택한 편지를 통해 김일성 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다자간 협상추진을 병행추진한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또 이 편지를 통해, "다자간의 협상필요성을 남한당국이 수용한다면 남·북정상이 개별적인 만남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3당합당이라는 변화된 남한 정세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 두개의 한국은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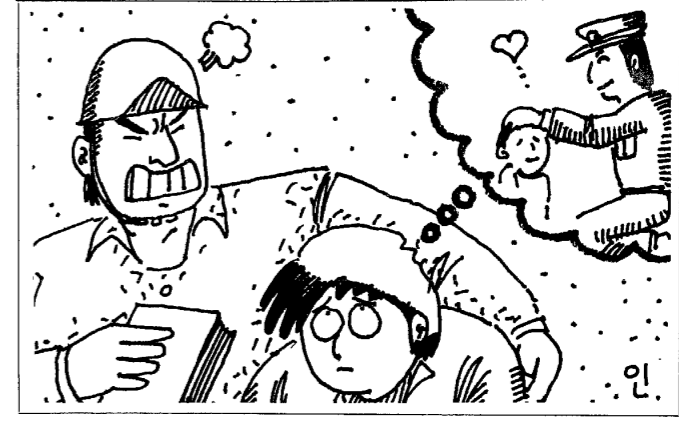
나름대로 진행되었던 통일운동을 한단계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관련성을 대동적으로 정립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조국통일운동은 일면 '조국통일운동'과 반외세 자주화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해, 현 정권과 미국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폭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오류도 지적된다.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은 총선제, 과도적 연방제의 단계를 거쳐 1980년 10월 노동당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제'로 그 구조가 완결된다.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첫째,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 하는 사상과 계도를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 남과 북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 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남과 북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할 수의 해외동포들을 대표로 민족통일위원회를 구성,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 남북의 연방정부를 지도한다"등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10대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완결된 통일국가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제거했다는데 그렇기 개정법의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법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법의 불이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8년 새로 신설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자행해온 월권,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무의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야했던 임의동행과 관련된 법률이다.

첫번째로 제기되는 문제가 임의동행 경찰관이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검문하는 것이 불리할 때, 그 장소가 교묘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투각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2조) 따라서 검문

시간내에 언제라도 임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 (동법 제6조) 이상의 조항을 어겼을 경우, 다시 말해 행인을 자신의 신분을 안찰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대머리라도 연락을 못 받게 할까, 경찰사에서 나오려 하는데 세시간이 지나도 계속 눌러 앉혔다 등의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1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동법 제12조)

이상에서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시 1년 후의 현 상황은 법제정 이전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물론 경찰의 비합법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그 법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개정 1년...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대로 지켜지나

"경찰까지 같이 가실가요" "이쪽으로 잠깐 따라오세요" 변칙적인 은색 헬멧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던져오는 이말은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많이하는 경험이다. 이럴때

가치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억눌려 강압당했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

지난 1981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된 이후 이 법의 미비함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시정하기위해 1988년 12월31일 개정된 법이 나왔으나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지는 커녕 오히려 6공이 들어선 이후에 더욱 늘어 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의경이나 사복경찰이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다가 조급 이상한데 그냥 끌고가고 버리고, 국회 의원이나 제언사가 어떤 행사에 나갈때 경찰에 의해 짐에서 못나오게 연금되는 경우 또한 허다했다. 이러한 것들이 법자체의 미비로 그 법을 자위해석으로 남용하는 대표적 예였는데 이런 월권의 소지를

임의동행 요구등 각종 월권 행위 여전

후에 이러한 것을 소지했으니 같이가자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월권행위이다.

두번째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했을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제25조) "같이 가실가요"할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찰관 갈수 있도록 함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다.

세번째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에게 신분증 제시와 함께 어느소속 아무개라고 밝힌 뒤 동행목적과 그곳으로부터 언제든지 나올 권리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한다. (동법 제24항)

네번째는 신실된 것은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갔을 시에는 제시 간이상 머물게 할 수 없거니와 세

개월이 가자면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독재정권의 권력집중화로 인해 그들의 입바람에 흔들리는 관대가 우리 경찰의 현주소이다.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이 보장되려면 경찰이 상층의 이해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 즉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이것을 만족시키기를 불매 해당지역의 행정주요직을 그 지역주민이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나오게 된다. 법원 뒤 동행목적과 그곳으로부터 언제든지 나올 권리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한다. (동법 제24항)

네번째는 신실된 것은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갔을 시에는 제시 간이상 머물게 할 수 없거니와 세

신데탕트 조류 맞춰 북한 유연한 입장 정부 통일안... 미국의 한반도 전략반영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와 88-89년의 조국통일운동평가

80년 광주항쟁이후 미국과 국가 권력의 본질이 밝혀지면서,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와 더불어 민족민주운동진영내에서는 통일의 문제를 정부에 맡긴다는 것을 '교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치부, 민족·민중주의의 통일운동이 원차게 진행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88년 89년 학생운동진영내에서 진행된 6·10회담 당사투쟁, 공동유희평행위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 및 8·15 남북학생회담, 평양축전 참가투쟁등이다.

80년 통일운동의 불씨가 된 것은 88년 3월 29일 김중구(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 북한이 찬성하고 나섰고, 5월15일 평壤성당에서의 조성만 열사의 분신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어 5월31일에는 조국통일특별위원회의 연립발족식이 한양대에서 있었다. 이어 6월10일 홍계동에서의 연와투쟁은 정부와 7·7선언을 일직 강하게 냈다.

이러한, 88년 89년 조국통일운동은 전체민중운동의 장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

첫째, 88-89년의 통일운동을 통해 우리는 국민대중에게 미국과 지배계급의 반 통일성을 폭로할 수

유연단국가임을, 교차승인의 유연단국가임을 기도하자, 예년 같은 뫼스프리트 훈현시 남·북대화가 북측의 거부로 단절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대화중단 6일만에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당대표들이 2차연석회의'에서 채택한 편지를 통해 김일성 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다자간 협상추진을 병행추진한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또 이 편지를 통해, "다자간의 협상필요성을 남한당국이 수용한다면 남·북정상이 개별적인 만남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3당합당이라는 변화된 남한 정세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 두개의 한국은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이승만 집권기 부터 현재의 6공화국까지의 정부통일방안은 미국의 대 한반도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88년 89년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어느정도 국민대중에게 폭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지배계급에 실정적 통일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다. 오직 조국의 통일운동은 국민대중들의 단결된 힘에 의거한 자주적 교류운동, 북한비로알기운동,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자주적인 민간정부 수립투쟁이 맞물릴때만이 가능하다. (사회부)

제8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기념 '제8회 학생논문'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 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어울렸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 뜻을 세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평정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응모자격... 본교생에 한함 (대학원생포함)

◇분량... 2백자원고지 50매가량

◇마감... 4월9일(월) 오후4시

◇발표... 4월18일(토) 본지지상(제1046호)

◇접수... 본사 총무부

◇상금... 당선작 1편(상장및 부상20만원) 기차 2편(상장및 부상15만원)

1. 4·19이후의 변혁운동을 통해 본 외세의 영향

2. 초기불교의 해방사상

3. 교육의 자주화를 위한 고찰

4. 올바른 통일방안

5. 현시기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

동대신문사

납입금 납부안내

1990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1990년 3월 23일(금) ~3월30일(금)까지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공통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감액처리된 고지서 포함)
서울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및 국민은행우로지점	① 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납입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② 북학생 및 재입학생
경주	경주캠퍼스 경리과에서 정정한후 조흥은행 경주지점 납부	

3. 기타

- ①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총무처장

수강신청 최종확인

1990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간: 1990년 3월29일(목)까지
2. 장소: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
3. 유의사항

- ① 수강신청과목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불가함.
- ② 전산처리 오류, 학생들의 기재착오,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 변경등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 가능함.
- ③ 정정사항은 학과 및 교학과에 신고할 것.

복수전공이수 접수

199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복수전공이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교부 및 접수: 1990년 4월2일(월) ~6일(금)
2. 접수처: 학적과
3. 지원자격

- ① '81학년도 이후 입학자
- ② '91년 2월 졸업예정자
- ③ 전공과정 이수시 매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이상이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4학년 2학기는 제외)

4. 제출서류: ① 복수전공이수 지원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교무처장

東國人에게 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東國人的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東國人 모두가 아픔을 남긴 忍苦의 계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時期에 不德한 小訥이 理事長이라는 重責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거운 따름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지금 우리 東國大學校는 開校 以來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좌절과 대립으로 경제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和合과 自省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비약적인 發展을 이룩하느냐 하는 결정적이라고도 심각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은 東國人 모두의 慈悲와 和合에 있다고 믿습니다.

教授, 職員, 學生 그리고 同門에 이르기까지 누가 우리 東國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우리 東國의 發展을 希求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표현과 方法의 차이는 있을망정 東國의 傳統과 自尊을 있다는 증거에는 추호의 差別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이제 우리의 熱과 誠을 東國發展이라는 한가지 目標로 集約해야 합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에 의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東國人 모두가 각자의 位相에서 最善을 다하는 길이야말로 오늘의 아픔을 극복하고 내일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捷徑이라 하겠습니까. 學校法人으로서의 조속한 시일내에 效率的인 學校發展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全東國人的 관심사인 總長選任에 대하여서도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適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東國人 여러분은 이러한 법인의 계획과 의지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和合의 인연을 심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宗團에서도 이미 東國大學校의 발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 바 있으므로 우리 東國의 未來는 결코 어둡지 않은 사실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과 協助에 힘입어 오늘의 아픔이 새로운 도약의 試金石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되기를 三寶前에 祈願하면서 東國人 모두의 가슴마다에 부처님의 慈悲願력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1990년 3월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 綠 園

니카라과 선거속의 미국의 본질을 밝힌다

원조로 포장된 '반란진압' 술책

○... 지난 2월26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
 ○...지도하던 오르테가 선거에서 패했다. 그동안...
 ○...미국의 간섭에 맞서 투쟁을 벌여온 이 민족해방...
 ○...의 패배는 제3세계에서 진행중인 민족해방투쟁...
 ○...의 모범으로 불리웠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가...
 ○...패했다는 의미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된다. 이에 산디니스타가 선거에 패...
 ○...배하러 온 근본적 원인과 미국의 저강도 전략에...
 ○...입각한 제3세계 반혁명수출을 살펴보고 제3세...
 ○...계에서 미국이 가진 본질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
 ○...고자 한다.

얼마전 우리는, 상당히 놀라운, 그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뉴스를 들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의 패배, 바로 그것이었다. 1979년 산디니스타의 무력투쟁에 의해 소모사 정권이 몰락한 후, 혁명의 제2도약을 위해 노력하던 오르테가의 선거패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의 과정을 평가 분석함으로써



특히 미국의 전략—우리가 남한사회의 변혁을 위해 어떤 관점과 사상을 틀어쥐어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산디니스타 정권의 출현

산디니스타란, 반미 게릴라 투쟁을 지도했던 산디노를 따르는 사람들(들)이라는 말이다. 이 부분에서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FSLN)이라는 계급연합이 가능했던 상황이 보다 중요시된다.

왜, 사회 지배계급인 부르주아들마저 소모사에게 등을 돌렸는가 보자.

보통, 소모사 '죽일 체제'라고 불렀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한의 제5공화국 수정헌의 '가족주의'보다 '조급'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은 전 가족의 권리와, 자본가화를 목표로 니카라과 국내 자원을 비롯한 기간 산업마저 모두 소유하려 했고 심지어 그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았다.

일반 자본가들과 '사이좋은' 관계보다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독단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이른바, '제도화된 파피야'로 불려지던 국가 수비대이다.

이 국가 수비대는 산디노의 반미 게릴라 투쟁을 차단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미'의 당사

자였던 미국의 지원은 전폭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1946년~75년 사이에 미국은 2333백6십만달러라는 지원금을 미련없이 제공했다. 또한 1950~75년 사이 438백97명의 수비대 요원이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결과적으로 이 국가 수비대는 경찰업 무 및 통신, 조세, 철도, 우편, 보건, 수입업무까지 담당하는 국가 관료 조직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은 정치적 자유보다 '공정'한 경제적 분배를 요구하게 되어, 다원적인 계급연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FSLN)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걸었던 혁명 원칙만을 보더라도 그 형태-특징-정권획득 이후상황 모두를 파악할 수 있다.

i) 민족 해방 ii) 정치적 다원주의 iii) 혼합경제 iv) 종교적 자유

자금지원과 홍보전략에 선거패배 '미국 아니면 죽는다' 환상 퍼뜨려 콘드라 반군이 무력으로 정권탈취

v) 국가건설 iv) 반제국주의 이것이 그들의 혁명원칙이었으며, 주도계급은 노동자-농민-중산부르주아 및 애국적 부르주아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원칙 중에서도 ii) iii)을 보다 주의 깊게 생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 2월 26일

이날은 국내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산디니스타를 이끌던 오르테가의 선거 패배가 확정된 날이다.

무장투쟁을 통해 집권한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한 사건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끈질긴 미국의 무력 간섭과 맞서 혁명을 수호해 온 산디니스타정부의 패배는, 전 세계 민족해방 세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오르테가의 패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그동안 혁명의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자만심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선거감사를 표

방한 미국 선거감사단의 활동과 자금지원을 허용, 함정에 빠지게 했다. 둘째, 경제가 극도로 피폐되었다.

10여년간, 미국이 지원하는 콘드라 반군과의 내전으로 인한 군비팽창과 인명손실, 미국의 봉쇄정책과 연 2천%에 이르는 물가상승 등에 의해, 혁명세력 못지않게, 불안정력이 성장했던 것이다.

셋째, 차모로(대통령 당선자)가 소모사정권에 합류한 페드로의 미망인이라는 점과 4백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선거자금 지원과 홍보전략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내전과정동안 니카라과는 5만여 명에 이르는 인명손실과 1백22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피해, 36%가 넘는 국가부채 등으로 경제건설은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차모로를 내세운 전국야당연합(UNO)은 당연히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특정한 미국의 원조속에 가시적인 경제제건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

니카라과뿐 아니라 제3세계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그들의 전략은 '저강도 전쟁'이다.

이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면을 총동원하는 전면전이며, 미국 민에 대한 예속된 정보제공과 반미의 움직임이 일고 있거나 성행하는

명목으로 향한 민중의 지지를 제거하면서 교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중미에서 이것은 다양한 경제 봉쇄정책으로 현실화된다)

둘째, 심리전은 본국과 해외에 있는 민중들의 이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조종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콘드라 라디오 방송국은 "산디니스타는 악마이며, 노인들을 죽여 비누를 만든다" 등의 등의 보도를 하며, 니카라과 국경을 따라 은둔라스와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셋째, 외교전은 독립국가들을 괴롭히고 시련을 겪도록 한다. 넷째, 군사전쟁은 저강도 전쟁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저강도 전쟁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실례는 지면상 다룰 수 없었으나, 제3세계를 조그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역시 일부 본 적용될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양의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에 단 하나 남은 초강대국 보수집단인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좀 더 공부하고, 남한의 역사속에 미국의 역할을 파헤쳐서, 우리 민중들에게 알려 나가 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김 광 철

(본문 동문)

교류: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세상이면 을 수 있는 곳을 오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전제헌학생측은 7월 평양에 계정원학생측에 참가한 임수경(의대·불어)씨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식민지 및 분단국가가 늘어났다. 그러나 45년여가 지난 지금의 세계는 새로운 발전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소련의 코르비코프가 내전 페테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와 더불어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통일독일이 현실화되고 동서 양진영간 군축협상이 진행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 불행스럽게도 이곳 한반도 땅에서는 평화무드는 커녕 오히려 1950년대의 냉전 군비확장 체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 일본, 중국 제국주의 열강이 버티고 있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다면 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이다. 더구나 전제헌의 의장이 갖고있는 상징성에 비추어 불배입생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줬습니까? 라는 한 학생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6일 오후 2시경 관해광장은 각 과별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이 모여 한 음방 1천여명의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은 이날 열거기로된 '학자 투 쟁쟁'을 위한 신입생·재학생 통일환미방에 참가 하려던 것이

김 광 철

(본문 동문)



고 남한내에 친외국 극우파소속권이 장악하고 있어 자주 민주에 근거한 민족통일의 길은 더욱 요원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7년 6월 민주화열기로 고조된 남한사회의 구조에 따른 변혁운동은 극토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88년의 '남북학생회담' 추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 89년에 들어 문익환목사의 방북과 임수경양의 '세계청년 학생운동 참가' 투쟁으로 점차 민족통일의 기운이 민중의 인식속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올해 90년도에 계기되는 조국통일운동의 조류로는 단과대별 방북 교류 신청이 대두되고 있다. 전제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과의 특성을 살려 불특정다수, 고적다수, 지리다수등을 진행하면서 남북한의 이질감해소와 학술연구등을 행하게 된다. 본교에서도 불교대, 지리교육과, 사학과 8개 과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대의 경우 6월불특정다수 투쟁으로 3월달에 문준수집행장, 4월달에 불특정다수 추진위원의 구성, 5월달에 불교 대중단체인 극토분단원에 방북신청하여 6월달에 답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불교대

순수한 학술적 답사 추진해 현실조건 고려된 교류돼야

학술회장 토론(선학3)소원은 "북한에 있는 유명 사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아직도 이곳에 많이 남아 계실 겁니다. 반드시 정치적 목적으로가 아니라 심정적으로라도 일단의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자유왕래하는데 무슨 정치적 조건이 필요합니까?"며 오히려 반문을 한다. 또한 지리교육과의 경우도 "북한에는 고대지질층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학술 조사의 가치가 대단히 큼니다. 순수한 학술적 차원에서 방북에 접근

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부득이하게 닦아내야 할 것임이다"라며 선학위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선학위가 승의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진화하였고 연설은 진행될수밖에 없었다.

기 우

일부에서 표명한 우려와는 달리 송의장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청년학생의 애국적 의지를 모아, 대동단결 투쟁해 나가자"고 참석한 학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정치투쟁, 학자투 사업등이 미친하게 진행되는 요즘, 학자투 집회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거라는 이유로 집회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는 것은 선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며 집회장을 빠져 나오며 한 학생이 되뇌고 있었다. (유기용 기자)

당신은 혹시.....
 광인이 아니십니까?
 갑질 저지름의 위험성
어느 광인의 이야기
 광명 저브라·권국성
 어느날 문득 위선의 기만을 벗어버리고 태연히 마구군을 밟아 울며 흐느끼고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상식과 예절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수한 모순들이 부수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값 3,000원
 광인과의 신성한 만남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자유의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바쁜이 전화기(MFC)로 (02)151번을 누르고 신촌가방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사랑의 편지"를 통해 주시경 선생님의 2242호 누르시면 누구나 24시간 광인과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진선출판사
 720-5799-5991

英字 直營
 日刊紙 The Korea Herald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4월 2일
 독해 Korea Herald사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화 Practical English, English Alive. Side by Side, Specion, American Stream-Line, 민영일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 (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의대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말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양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 학원
영어회화
 제65기과정 모집 안내
 개 강: 1990년 4월 9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 이내로 반편성.
 ●수준테스트는 매일 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월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동고 학력 수준의 전문 Native Speakers.
 ●수업시간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TOEFL 종합반, 러시아어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 학 연구원

9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예고한다!!
 관객의 즐거움을 가장 보수적인, "민는 즐거움"인데(우묵배미의 사랑)은 이 즐거움을 배반하지 않는 秀作! (영화평론가 이세룡)
1990년 새봄 사랑의리얼리즘선언!
 "플라시드카! 원지, 방송! 이진진 플라도 리면에 뛰어들어! 그러면 그리대로 행복한 트롯트人生!"
 아름다운사람들이있다!
 가장 슬픈사람들이있다!
 가슴을 찢고내고
 아직도 깨어지지않은
 매혹찬 바람이부는이겨리
 사랑처럼도되고 절실한것!
 사랑이런
 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고 배미의 사랑은...
 떠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
 신봉삼 3년만에
 바람결과 4부 "배미의"
 타고난 기쁨에 오려
 더 매력적인 여자 "민공"
 화려한 샹투카,
 역설 환무리 인생 "시택"
 백종현
 최영호
 유해리
 1990년 사랑의 봄 - (우묵배미의 사랑) 영화감상평모집
 1등: 20명, 제주도 왕복항공권 2등: 20명, 실착신 속시권
 3등: 100명, 소설 (우묵배미의 사랑)
 보낼곳: 서울 중구 충무로18-5(영보극장 기획실)
 마감일: 1990년 4월 15일 도착분
사랑, 삶 그리고 이별... 곧 시작합니다!
명보아트홀 명보극장
 흥국화신사 광명동 732-2131/2 274-2121 2122

80년대에 벌어졌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선 대학 만평가들의 시각으로 풍자묘사한 만평모음집 '터지는데 5분 버티는데 6분'이 미래출판사에서 발간됐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문화분과에서 오랜 작업끝

대학살 5중비리의 주범 전두환이 종언대에 오르키까지의 슬한 고난과 왜곡에도 피폐되지 않는 민중의 건강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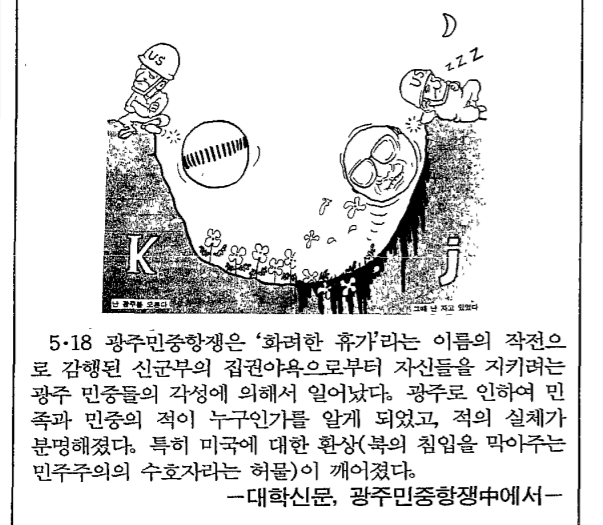
민중의 지난한 80년대를 윤곽케 풍부질하여 승리의 90년대에 있어 미약하나 하나의

만평집 '터지는데 5분 버티는데 6분' 민중의 건강한 모습 예리하게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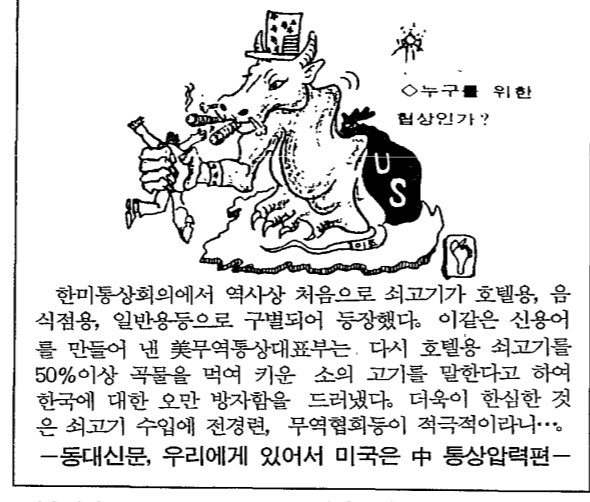
올바르게 소화해낸 치열한 역사 의식이 깔려있음을 느낄 수 있다.

를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80년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대 대학신문의 만평은 민중들의 모습을 담으려했으나 계엄 당국의 심한 검열로 대부분 삭제됐다. 그후 84년까지의 만평은 미방·학적 등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소재에만 국한되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현실도피적



5-18 광주민중항쟁은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강행된 신군부의 집권야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는 광주 민중들의 각성에 의해서 일어났다. 광주로 인하여 민족과 민중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적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특히 미국에 대한 환상(북)의 침입을 막아주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이 깨어났다.



한미통상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최교기가 호벨용, 음식점용, 일반용 등으로 구별되어 등장했다. 이같은 신용어를 만들어 낸 재무부통상대표부는 다시 호벨용 최교기를 50%이상 폭탄을 터여 키운 소의 고기를 말한다고 하여 한국에 대한 오랜 방자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최교기 수입에 전경련, 무역협회등이 적극적이구나...



"한국에는 정치범이 한 사람도 없다" 노태우가 미국과 유럽에서 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양심수 석방 문제가 지난해 말의 청와대4당 총회회담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노'로 잠혀있다가 정치노름판에 이용당하는 절절한 석방초치가 아닌 대중적요구에 입각한 석방, 민주화와 통일외 연명의 따른 시원스럽고 마음부듯한 석방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슬퍼마소서 우리는 승리하리니'의 가치야래 대학신문의 만평도 서서히 현실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하나 이때까지는 감상적이고 관념적인 만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때때로 패배적인 모습들도 보였다.

마지막만인 87년 6월항쟁



70년대 후반 유신독재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봉착하자 정권유지수단으로 율령법 유치를 계획. 당시의 한국경제가 외채누적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원인은 광주 학살을 자행하는 등의 정통성이 없는 취약한 통치기반을 유지하기위해 스스로를 통한 대중의 정치의식 마비와 율령법 진시효를 통한 한국민화자를 통해 국민의 저항을 거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에 퍼낸 이책에는 낭만적 소부르아적인 역사외식에 조중을 올린 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85년 구로동맹파업, 89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항투쟁 그리고 89년 12월 31일 광

디탈로로 자리매김하기위해 발간된 이번 만평집에는 제도언론이 거세당하고 있을때 항상 역사의 현장에서 예지의 필봉을 휘둘렀던 대학신문에 실렸던 만평들이었던만큼 사건들을

배우사력-꼭꼭각시 놀음- 80년대의 변화와 전향의 3장으로 구성된 이 만평집은 계간장에서 '광주항쟁, 우리에게 있어

부터 89년까지는 '절리 총 어 깨고 나가자' 가치야래 급격히 성장한 민중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된 대학신문 만평 역시 지배계급의 본질을 폭로함과 동시에 민중의 건강한 정서를 담아내는데 만평의 기술적인 측면 또한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하나 3당통합과 사립학교법

梁文欽 (문과대학교수·고대그리스철학)



3당통합은 민족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결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결단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시급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바로 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온 대결단이 3당 통합이었던 것이다. 통합하는 분들은 정권은 둘째이고 시급히 요구되는 개혁 작업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했을 것이다. 6공화국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에 미지근하더니 이제야말로 개혁정치를 하려는가보다 하면서 잔뜩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보기에라도 민족과 국가를 앞세우는 대결단에 어울리는 명분은 개혁정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통합 거대 여당이 나아가는 방향은 분체를 해결하려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분체를 악화시키는 쪽인 것 같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의 절대 다수인 금융 실명제 실시는 많이 가진자들의 눈높이 따라가 유보 중이고, 생존권과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탄압을 받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여겨지던 반민주 악법들은 가버려 손질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법의 악으로 감옥은 시국사범들로 넘쳐나고 있다. 민생 치안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불균형 사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주택 문제로 많은 서민들의 생존이 위

협받고 있으며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는가? 3당 통합이 민족과 국가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라고 누가 아프도록 듣지 않았는가? 기다리고 있던 개혁은 어디로 갔는가? 개혁이 없이 우리 나라의 앞날이 밝을 수 있던 말인가? 왜 대결단이 가진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독점자본의 강화가 이 시대의 요청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신 사교'는 냉전체제의 과감한 청산과 대담한 민주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대 여당에서 사용되는 이 낱말은 아무래도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국회는 최근 사립학교법을 여론의 주목을 피하고 통과시켰다. 제단의 종벌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교원의 인사권을 제단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법안 때문에 모든 사립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학제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인가에 우리의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진정 국가의 일익으로 합당하게 만든 법안이라면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공익정신을 높이고,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 누구나 이런 방향의 법이 좋으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국적적 차원의 합당 후 열 첫 국회가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앞으로 나라의 앞날에 좋지 않은 일들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그것만큼은 80년 광주항쟁부터 84년까지로 광주항쟁 당시 '광주여 무등산이여...' 기적이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만인 84년 대학자살조직부터 87년까지는 '동지여'를

모니터요원을 찾습니다!!

동대신문사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전 동약인의 경험을 선포한 동약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모니터제도를 도입,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체로 서고자 하는 전동약인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타 모니터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직통전화 267-8577, 구내전화 2194)로 연락하십시오.

우리의 신문이라면 나도 참여할수 있을까?

한번가보자.

와~ 기사취재, 신문평가, 그리고 세미나까지 기획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의견도 신문을 통해 밝히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돼지?

동대 신문이 보다 대중적으로 뿌리 내리 겠구만.

모니터요원은 교수, 학생,직원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취재하러 가자!

동약장

알림

◆제4회 시림문화상 현상공모

시대와 함께 나아가 비로소 민중과 더불어 통일조국의 찬연한 아침을 맞을 전국 대학생들의 의지를 아래와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현상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80매내외)...20만원
- ◎시(3~4편)...20만원
- ◎평론(60매내외)...20만원
- ◎논문(분야제한없음)...20만원

(당선작은 始林 제10집에 게재. 당선작이 없을시는 가작처리, 상금은 당선작의 절반임)

◇응모요령 및 기타

- ◎대상:전국 대학생
- ◎마감:90년 4월 27일
- ◎발표:90년 5월 하순
- ◎심사위원:추후 발표
- ◎보낼곳: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전 화:2-0131(교환 583)

※응모작품은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응모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동국대학교 '시 림'편집위원회

소식

지난 1월13일 박종철열사 3주기를 맞이해 선진적 투쟁을 벌이다 백골단의 살인적 폭력에 쓰러져 구속·수감중이던 법학과 학우 이창규군의 공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조중 법원에서 열릴 이번 공판에 많은 학우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 외로운 우리 동지의 모습을 확인하며, 사법부가 어떠한 양심을 지녔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합니다.

-법대의 한 학우가-

사회학과 '90학번 애들이!

4월6~7일 사회학과와 이법 M-T만큼은 모든 결정을 벗고 서로의 앞일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렵. 그럼 모두들 건강하게 다녀와!

-사랑하는 명진이가-

사랑하는 선호, 동인, 선희, 현숙아 지난 토요일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너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 그리고 90년을 나를 봤을때 사달라고 인하면 막 때려줄거다.

-영여연극반을 사랑하는 공봉-

'번데기가 이세상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느님은 나비라고 부른다'는 구절을 생각하며, 많이 힘들더라도 날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힘내라, 원경아!

-네 친구 형숙이가-



등록금 투쟁 승리 다짐

신입생·재학생 동일한마당 성황리 열려

4월6일까지 협상 마지노선

“등록금투쟁승리 및 신입생·재학생 동일안마당”이 학생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26일 오후2시30분부터 비총주회로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의 1부는 ‘사립학교법’의 부당성 지적, 등록금협상경과보고, 신입생등록금불투쟁결의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강연회, 비디오상영 등이 있었다. 이과대학학생회장 이광현(수학4)군의 사회로 열

린 1부에서는 법과대학학생회장 허병철(법학4)군이 나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자부담의 파소와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등록금 협상보고’와 이후 투쟁방향에 관해 학자부담위원장 강병두(미술4)군은 13차례의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에-결산중개등 지난21일 합의된 6개항 즉각 이행과 재단이사진행권을 통해 등록금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며 “재학

생은 단대학생회로 등록금을 납부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비총의장 김경환(사학4)군도 운영위원12명은 자파자로 결의를 다졌다. 또 사회대 손승일(사학3)군은 “사회학파가 드리는 투쟁소문”을 통해 6개항 정취 및 각 단과대 등록금납부를 호소했으며, 계속 야간강과 총학생회장 권명옥(경제4)양은 등록금 환불투쟁에 신입생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경상대 1학년대표들은 “총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정과개수감은 인상을 준다”며 신배들의 등록금투쟁을 강조했다.

한편, 비총의장 김경환(사학4)군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6개항이 이행될때까지 등록금은 단대로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부 강연회에서는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김희선의장이 연사로 나와 ‘올바른 대학생활’에 관해 정치적인 인간, 주체적인 삶, 예의식등을 강조하고 투쟁의 실천이 사랑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제4기 전대협임시의장 송갑석군은 “학자투는 동대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 1백만학도의 투쟁”이라며 “총학생회는 통일단결로 전대협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를 마친 뒤 중앙당에서는 신입생 대상으로 ‘입수경방북관련’ 비디오상영이 있기도 했다.

한편 ‘빈민주아합분쇄를 위한 동약인 결의대회’가 비총주회로 지난21일 오후1시 학생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경상대학학생회장 강운원(무예4)군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는 ‘빈민주아합의 본질’ ‘보수야합분쇄와 청년학생의 임무’ 등에 대해 사회대 박원석(사학3)군과 김성규(정치4)군이 나와 보수야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 분쇄를 주장했다.

또 이날 정우식(철학3)군은 텀스피리트훈격증장, 미군철수등을 역설했는데,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중문 앞 도로를 점거,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주총학서 부총장실 점거

등록금 인상 반대-구속학우 석방요구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백대진·영문4)는 지난22일 오후3시 ‘등록금인상 반대’ 구속학우 석방을 요구하며 부총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복원에서 학자투 보

“교수회는 각성하라”

서울캠퍼스 평교수협의회는 현재 교수회가 위상정립을 하지 못한채 미친 상에서 교수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민중선거, 계단개선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동국이 방학타를 잃고 침체와 부진의 퇴역적 모습을 드러내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시작되는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단은 소속적 자중지한의 감동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시급히 조성하여 새로운 면모로 개선되기를 호소한다. △계단은 교수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사업보고 및 예산실정 등 논의

동아리 연합회는 오는 30일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가진 예정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장=이국중·KUSA) 추가등록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재등록한 동아리는 올샘, 탈레, 불교학생회 비록 42개이며 신규등록은 솔메리아동국법원을 비롯한 15개 동아리이다. 신규등록은 지난 27일 오후 6시 동원 사무실에서 열린 가등록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2/3이상 출석에 참석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스리랑카대사 내교의과대학 교류 제안

‘카루나체나 코디투와’ 주관 스리랑카 대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 申國駐京사리를 방문, 환담을 가졌다.

제2대 주한 대사인 그는 이날 申총장사리와 吳國根부총장 등과의 환담회에서 “한국의 유서깊은 동국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의과대학의 상호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申총장사리는 “의과대학의 교수·학생 교류를 성사시켜 양국간의 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동아리 연합회 가 주최하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지난 27일 오후 6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가졌다. 이날 회의는 동아리 연합회 사업보고, 각 분과장 소개, 예산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제 동원측은 중부서와 수차례의 협상을 가지며 폐쇄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중부서측은 1백40여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리 연합회는 오는 30일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가진 예정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장=이국중·KUSA) 추가등록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재등록한 동아리는 올샘, 탈레, 불교학생회 비록 42개이며 신규등록은 솔메리아동국법원을 비롯한 15개 동아리이다. 신규등록은 지난 27일 오후 6시 동원 사무실에서 열린 가등록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2/3이상 출석에 참석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스리랑카대사 내교의과대학 교류 제안

‘카루나체나 코디투와’ 주관 스리랑카 대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 申國駐京사리를 방문, 환담을 가졌다.

제2대 주한 대사인 그는 이날 申총장사리와 吳國根부총장 등과의 환담회에서 “한국의 유서깊은 동국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의과대학의 상호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申총장사리는 “의과대학의 교수·학생 교류를 성사시켜 양국간의 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복위 ‘총학장학생’ 선발

단대별 2명씩 총 22명

학복위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2기 총학장학생선발을 지난 25일 오후1시 학복위사무실에서 실시, 총22명의 장학생을 뽑았다.

89학년도 2학기 학복위사업으로 적립된 잉여금 6백여만원에 대해 지난19일부터 접수 받은 36명이 지원, 11개 단과대별 2명씩씩선출, 22명에게 기정회비를 면제받는다.

수혜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영심(불교) △신상순(인철) △정소영(국문) △김경남(철학) △이동진(물리) △김기원(물리) △김상용(법학) △박정규(법학) △김정진(무역) △김진선(경영) △한희진(경영) △김기태(경제) △박상제(행정) △최완익(전자계산) △김

박상호 학군단장

본교출신 최초부임

본교 학군단장에 박상호 대령이 지난 1월18일자로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박단장은 본교 학군단 설치이래 첫 동문출신으로 67년 화학과를 졸업(ROT6기)했으며, 작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연대장등을 역임했다.

야간강좌 회장 당선

제6대 권명옥·양주영조

제6대 야간강좌 정·부학생회장으로 권명옥(야간경제3)과 양주영(야간경제3) 조가 당선됐다. (인턴뷰 참조)

지난 20, 21일 양일간 치뤄진 이번 선거는 총투표자 1천 52명중 기호 1번조가 5백93표

야간강좌 회장 당선

를 얻어 기호2번과 1백89표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정승(야간경제3)양은 총투표자 2백31명중 2백2표표를 얻어 87.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야간교육의 정상화에 힘써야

—단대 학생회장 첫 ‘여장부’는 말한다.

상황을 무시한 학생회 사업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과-학년 토론회를 통한 의견전공과 상-하부 연대를 통한 대중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학자투에 대한 야총의 입

인터뷰

지난 20, 21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제6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사업준비에 헌신할 신입야간총학생회장 권명옥(야간경제4)양을 만나 보았다.

—당선소감은

“올해 학생회의 임무가 막중한을 느낄때 당선의 기쁨보다는 사명감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야총의 기본 운영원칙은

“작년엔 학년별 단과회 학우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학우역시 학생회사업에 주체적 참여를 못했습니다. 과토론회를 기반으로 학우들을 기초한 학생회 건설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야간강좌 폐지 음모 본래 야간교육의 무의미는 무엇이고 올해 투쟁방향은

“학우들의 인식부족으로 투쟁주체로 나서는데 패한것과



야간총학생회장 권명옥

‘여성이니까’ 인식 불식할 터

상-하부연대 대중투쟁 전개

장과 발전적 대안은

“주간의 기획적 변형으로 인한 야간교육의 차별성 타파, 야간강좌 상황에 적절한 마스터플랜 제시에 뜻을 맞추고 학우들의 의식화, 조직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총사상 최초의 여성회장

민자 방송국 ‘뽕이야’

○정부관영 민자(구, 민정) 방송국(?)에서는 “뽕이야!”라는 말을 유행시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연유인 즉, 지난해 ‘토지공개념제’ 실시가 ‘토지공개념’이 되어버리고 ‘금융실명제’가 기존의 금융실명제로 돌아가버려 국민들은 정부의 “뽕이야!”라는 말에 쓴웃음을 짓고 있을 뿐이라고.

이에 모학우曰, “우리도 민자방송의 결성을 ‘뽕이야’로 없애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며 기립.

생동할만하다’가 열렸는데 총학생회기간이라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등록금협상 및 ‘구속학우 석방’과 관련, 학생대표와 학교측간 연석회의가 지난23일 오후4시30분 동정중인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申총장 사퇴와 면담을 요청, ‘총장의 주안회 이상 경주 상주 근무’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후 구체적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26일 오후4시 중 앙운영위 회의에서는 9-8%인 상액의 등록과 관련, 선등록 후환불 문제를 벌여나가기로 결정하고 학대간부회의를 통해 각 학생회에 알리기로 했다.

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거시적 안목으로 과학적 일치라를 해야 학우대중의 지지를 받게 될 날이 드디어 온 듯 합니다.”

속 인당수 풍당 /

○...지나해 계속적인 물의 위력을 과시하며 속 인당수(?) 씨리들의 주인공이 이 번에 다시 한번 그 위력을 과시.

지난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신문거장을 누벼오던 정호영 씨가 드디어 사퇴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배후에는 인당수보다 더욱 큰 물의 세

소수 정예부대(?) 선거

○총학 선거가 막막하여 이르자 뜨거운 열기로 타는 목마름의 하소연이 들려.

지난26일 비총주회로 ‘등록금투쟁승리 및 신입생·재학

인상 바람이 학교로 부세”

유증 각 대학에서 등록금 부당인상 반대 및 계단 전일 금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중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발부한 등록금고지서에 동시 다발적으로 환불투쟁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했다

나

하지만 우리

는 협상초기부터 예외 없었기에 비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력이 있어.

“칼로 성한 사람은 칼로 찌르고 싶지만 물의 나라에서 물침대 타고 다니던 정, 물의 의해 물러난다고 과연 물의 힘을 우대하냐”고 말하는 그와 추양

한대신문 기자들의 「광고질서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학교당국과 광고대행사만의 독단적 광고계약은 무효입니다

1. 건강한 광고를 실고자 하는 「광고질서회복운동」은 기자들의 정당한 요구일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책임이다.

「무를없는 권피보다 서서죽는 직책을 택한다.는 대명제를 승고한 진리로 믿으며 그동안 한대신문은 오직 자유·민주·통일의 참언론으로 독자들의 「알 권리」에 충실히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엄청난 탄압과 맞은 한계에 부딪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대신문의 존폐를 묻는 위기의 기로에도 섰지만 오직 한대신문을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진실성을 위한 붓대만은 꺾을수 없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한대신문이 처한 많은 한계중 하나가 바로 「광고」였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이전까지 광고는 신문제작 주체인 학생기자들에게도 관심 밖이었다. 광고도 전체 신문지면의 1/3을 차지하는 또다른 의미의 엄청난 기사고 독자에게 책임져야 할 신문지면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 광고면의 무관심은 한대신문의 지향과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저질 광고,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광고가 개재되고 무비판적으로 마일 외세의 저질문화를 유포시키는 광고가 실리는 등 중개는 한대신문의 건강성을 갠아먹고 넓게는 전전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에 그간의 한대신문기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무책임을 통렬히 자기 비판하면서 「광고질서회복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 또한 광고지면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학교나 광고대행사가 아닌 우리 대학인이며 신문 제작을 맡고 있는 학생 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좀더 좋은 신문,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숨겨진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건강한 광고를 실고자하는 「광고질서회복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도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등 도저히 대학인의 자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미이성적인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것이다.

2. 독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한대신문사의 부당한 제작 중지는 즉각철회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당국의 독단으로 2주제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있는 한대신문사의 경우이다.

올해 광고계약이 만료되는 한대신문사는 『서울지역대신문기자연합회』의 중시 사업으로 진행중인 「광고질서회복운동」차원에서 우남과 함께 대표적인 약덕광고대행사로 규정당한 에드젠과고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 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하였다. 학교당국도 「광고질서회복운동」의 취지와 에드젠의 파행적인 행위를 이해하고 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광고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학생들과 협의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2일, 그중단의 논의과정을 전면 무시 학생기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에드젠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학교측과 광고대행사만의 독단적인 계약은 인정할수 없다.하며 자체 기획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3월14일 학교측은 에드젠의 광고를 실지 않겠다는 이유로 한대신문 2만 독자들의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제작중지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신문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월23일) 한대신문사는 다수 기자들이 제작 중지 철회와 광고 질서회복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우리는 최소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마저 증발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율적 민주주의가 명맥을 이어 온 곳이 대학이란 사실을 중지로 여겨왔다. 또한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는 교수님의 존엄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굳게 믿고 따라 왔었다. 그러나 지금 학교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한대신문 2만 독자의 「알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한대신문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가슴아프게하는 사태에 대해 학교당국의 책임과 신문사를 대표한다는 주간교수님이 과연 얼마만큼 한대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의 생명이 어느 일방의 자의적이고 변질된 판단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은 분노를 갈할 수 없다.

한대신문은 어느 일방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며 또한 소유할 수도 없으며 소유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한대신문에 대한 최종 판단의 권리는 한대신문 2만 독자와 대학인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

언론의 생명을 끊는 제작중지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서울지역대신문

3. 한대신문사가 광고계약을 거부한 에드젠은 과연 건전한 광고 대행사인가

에드젠은 그간 한대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매체료는 적게 주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우남과 함께 대표적 광고대행사의 하나이다. 특히 이슈이 생긴다면 광고 내용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피체적·비윤리적 광고를 서슴없이 게재해 왔으며 서감대, 외대, 한양대등에서는 계약사상에 작성된 매체로 납입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를 편향대로 지급해 문제가 된적도 있다.

또한 외대와 동국대 등에서는 계약할 당시 촉세본을 제작해 주기로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로인해 한대신문 기자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약덕광고대행사의 대표적인 회사로 규정당한 상태이다.

각급에 서대기전차원에서 광고질서회복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자 이로운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매체료를 기존의 2~3배 올리고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하루아침에 자선사업가(?)로 돌변 우리를 여러모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광고면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전제 한대신문 광고를 계획적 안정적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님을 알고 있다.

한대신문의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의 기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하는 기업과 대학의 중개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든 서비사업이 그러하듯이 성실과 신용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고대행사도 광고를 책임지는 주체의 하나라 할 때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단언 하는 바는 당연히 대학사회에서 추방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정의 전당인 대학에서 약덕광고대행사를 추방하고 「건강한 광고」를 담은 건강한 한대신문을 독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을 다짐한다.

통일염원 46년 3월26일

서울 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